

두 개의 슈퍼파워:

미국과 반전평화물결

이대훈 (참여연대 협동처장)

최근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하는 국제적인 반전행동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세계 곳곳 수백 개의 도시에서 같은 날 한 목소리로 거의 매주 이라크 침공을 규탄하며 부시 행정부의 야만을 고발하는 평화의 광장. 그러나 이 역사상 초유의 모습은 우연도 아니며 거대한 기획도 아니다. 한 나라의 수백개 시민운동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며, 9·11 희생자의 가족들이 “우리 이름으로 전쟁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결합해 있기도 하다. 이라크의 소녀들이 호소문을 보내기도 하고 문화계의 스타와 거장들이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평화의 흐름이 거미줄에 거미줄로 엉켜 지구촌을 뒤덮는 양상이 되었다.

평화운동의 효시- 반핵운동

이러한 반전평화물결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다. 반세기 전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난 국제사회는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전쟁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유



엔의 이름으로 고안해 내었고 이를 여러 가지 국제법으로 제도화 하였다. 냉전시대가 오자 국과 소련의 핵 경쟁에 경악한 구미와 일본의 시민들은 정열적인반핵운동을 벌였다. 버트란드 러셀과 알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대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하거나 길거리에서 물대포를 맞으며 핵무기의 반인륜성을 사람들에게 설파하고 행동하기를 촉구했다. 현대 평화운동의 효시다.

우리 사회가 남북대결에 몰입해 평화문화를 배척하는 반세기 동안, 강대국들의 미친 듯한군비경쟁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 다양한 평화운동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원래 그렇듯 평화운동은 국가가 나서기 전에 스스로 여러 길을 열었다. 전쟁을 예방하는 길, 예방 외교,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폐지하는 길, 군수무역 군수산업에 대한 통제, 비폭력의 평화 문화의 함양, 군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 시민적 자유의 정립, 반인륜적인 무기의 폐지, 전쟁범죄 침략범죄 처벌 제도 - 이런 주제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행동에 나서게 만들고

정교한 구상을 하도록 만들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수천개의 평화운동 단체들과 수만개의 평화지향 시민모임들이 살아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각기 관심사에 따라 종교적 평화주의를 추구하기도 하고 유엔을 해 전쟁억제를 호소하기도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이나 전쟁세 납부거부권을 확산시켜 이를 시민권으로 정립하기도 하고 군사주의의 본질로서 군사권력의 남성적 본질을 파헤치기도 한다. 동시에 여성주의 입장에서 남성들의 폭력문화를 비판하기도 하고 호전적인 정치인의낙선운동을 하기도 한다. 또한 자연의 공생원리에 기초한 생태평화주의를 평화의 철학으로 전파하기도 한다. 평화문화교육과 분쟁조정교육은 여러 나라에서 공교육으로 제도화 될 만큼 평화운동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어떤 이들은 핵잠수함에 침투해 설비를 부수기도 한다.

평화운동의 역사와 반전시위 열기 비례

구미와 일본의 평화단체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세계적인 시민평화대회와 토론편모임을 열어 평화에 대한 논의를 축적하고 시민사회의 자각을 높여왔다. 현재 진행되는 각국의 반전평화시위를 보면 평화운동이 오래 축적된 사회일수록 그 열기와 참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의 시민단체들은 이미 1950년대부터 반핵운동과 군축운동을 전개해 왔고, 1980년대부터 빈곤, 수탈 등 제 3세계 문제를 지원하는 흐름도 만들어 왔다. 이런 사회에서 매주 수십 만에서 수백 만 명의 시민들이 침공반대를 외치는 바탕에는 전국 곳곳의 작은 모임에 '참여'의 힘을 믿는 위대한 시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평화물결 역시 1970년대부터의 민주화 열망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거대권력의 횡포에 맞서고자 하는 양심과 시민성의 발로인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 된 반전평화물결은 단순한 반미나 미국 패권에 대한 반발로 볼 수 없는 깊이가 있다. 물론 미국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불신과 우리가 출발점이다. 미국의 이번 이라크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을 멸시한 채 '선제공격을 통한 자위'라는 명분

으로 인류에 대해 벌인 만행이다. 이라크인들을 '해방' 시킨다는 명분 아래, 바로 그 이라크인들이 폐죽음을 당했다. 사실상 학살이 진행된 것이다.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미국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이보다 더 깊은 이유 있는 불신이 존재한다. 현재 지구촌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경험하는 절박한 문제. 즉 기아, 빈곤, 빈부격차, 자원독점, 환경파괴와 같은 삶의 위기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 허나 그 어떤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희생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다. 더구나 이런 문제에 초강국 미국이 진지한 관심이나 해결의 지도력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조차 근처에서 무너지고 있다. 한편에는 '미국 국익'의 이름으로 거대한 비용의 군사력 과시가 지속되고 다른 편에는 실질적이고 절박한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국제법 파기가 자행된다. 무관심 정도가 아니다. 국제사회를 대하는 근래 미국의 대외정책은 '내가 말하니 진실 이니라', '여러분의 규칙에 미국은 예외'로 요약될 수 있을 정도로 오만하다. 우리편 아니면 적이라는 부시 독트린으로 반론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런 오만한 초강국이 우리 세계의 합당한 관리자라는 점을 믿기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공생, 다양성의 삶, 그리고 관용

현재 세계화 된 반전평화물결은 운율을 담은 깊은 파도와 같다. 미국이 추구하는 <폭력과 패권을 통한 질서>에 동참할 수 없다는 양심의 운율이랄까, 울음 이랄까. '위협'의 허구가 전복된다 - 미국의 패권전략이 오히려 최대의 위협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반전 평화 그룹들이 제시하는 <공생과 다양성의 삶>이라는 세계관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호소력을 갖는다. 패권 대신 관용이 이정표로 제시된다. 사람들 가슴속에서 전쟁과 평화의 승패는 이미 분명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보는 지구촌의 모습은 군사력을 차지한 슈퍼파워와 사람들의 마음속을 차지한 슈퍼파워의 대결이다.